



엄태항(성서침례대학원대)

## 1. 들어가는 말

요시야의 개혁은 초반부터 독자의 예상을 뒤엎는 사건들이 연속된다. 느닷없이 시작되는 성전보수, 우연한 율법책의 발견, 홀다의 신탁과 요시야의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운명을 가르게 될 일련의 변화는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요시야의 개혁에 관해서 신명기 역사는 가장 주목할 만한 시대와 개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요시야 개혁이라는 커다란 주제에 가려 예언자 홀다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경향

1) 이 논문은 2017년 4월 28일 한국 구약학회 104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있다.<sup>2)</sup> 홀다와 관련해 열왕기는 다음과 같이 적지 않은 의문을 제기하는 데도 말이다: ‘홀다는 누구인가?’, ‘왜 요시아는 당시에 예레미야에게 묻지 않고 홀다에게 가도록 지시했는가?’, ‘여성 예언자의 등장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가?’, ‘요시아가 평화롭게 죽는다는 예언은 왜 성취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홀다는 거짓 예언자인가?’<sup>3)</sup> 꼬리를 무는 의문들은 열왕기서 연구에 또 다른 숙제를 남긴다. 지금 여기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다. 다만 이런 질문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왕기에서의 홀다의 역할과 역대기에서의 홀다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지 본문의 차이를 비교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열왕기의 처음 독자였기 때문이다.<sup>4)</sup> 질문에 대한 범위를 더 좁혀 특히 열왕기의 저자는 홀다가 여성인 것을 어떤 모티브나 강조점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에서는 예언자라는 직책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홀다를 미리암(출 15:20-21; 민 12:2; 미 6:4), 드보라(삿 4:4-5:31), 노아다(느 6:14)<sup>5)</sup> 등에만 국한시켜 파악하였기 때문에,<sup>6)</sup> 예언자

- 
- 2) 요시아의 개혁에 대한 주제의 연구에서 홀다의 예언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국내의 논문 가운데 홀다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홀다를 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흥미로운 연구로는 카프카주의적 원형으로 해석하고 있는 서명수의 논문이 있다. “예언자 홀다(Huldah)와 카프카의 ‘회당의 동물’”, 『문학과 종교』, 제14권 1호(2009), 117-136. 그 외에 홀다를 언급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현숙, “기독교의 여성 이해”, 『새가정』, (1982), 37-42; 이경숙은 요시아의 개혁에서 홀다의 역할이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지적하면서 여성신학의 입장에서 홀다를 분석하면서 왕국 시대에 홀다말고도 잊혀진 여성 종교지도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유대 문헌에 등장하는 홀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그 증거로 든다. “요시아 종교 개혁의 동반자”, 『기독교사상』 37.11 (1993), 192-200; 이외에 하미자, “구약에 나타난 여성 지도자 연구: 미리암 · 드보라 · 홀다에 관한 여성신학적 고찰”, 『한국여성신학』, 56 (2004년 3월), 60-68이 있다.
  - 3) 열왕기에서 홀다의 예언 문제는 “Was the Prophet Huldah a Liar?”라는 제목으로 필자의 논문이 SBL/EABS International Meeting in Berlin, 2017년 8월11일 ‘the Law and Narrative’분과에서 발표되었다.
  - 4) 열왕기와 역대기의 편집에서 역대기가 사용한 자료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의 대본으로서 열왕기가 우선한다는 입장은 대부분의 학자들에게서 받아들여진다.
  - 5) 거짓 예언을 통해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던 여자 예언자.
  - 6) 흔히 홀다는 미리암, 드보라, 노아다와 비교하며 설명하지만 탈무드에서는 일곱명의 여예언자들로 사라, 미리암, 드보라, 한나, 아비가일, 홀다, 에스더까지 확장한다(*b. Meg.* 41a), H. G. M. Williamson,

가 아닌 여인들이 던지는 예언적인 목소리나, 다른 예언자와 더불어 행동과 장면을 통해 선포하는 그들의 예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sup>7)</sup>

이런 중요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역대기 본문이 과연 이런 관점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역대기도 홀다의 여성성을 어떤 모티브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주제를 강조하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본문에 반영된 문학적 특징을 조사하는 기초 작업은 필수적이다.<sup>8)</sup> 홀다의 여성성에 대한 논쟁은 여기에서 모두 논할 수 없으나 적어도 이 논문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열왕기에서의 홀다의 기능과 역대기에서의 기능을 특정하기 위해 본문을 정밀하게 읽는 한편 본문이 더 큰 맥락에서 어떤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지 평행본문과 인접 본문을 요시아의 개혁이라는 틀에서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으로 비교 검토하려는 것이다.

연구의 진행은 홀다 예언의 본문 위치가 열왕기와 역대기의 요시아 개혁 담화에서 어떻게 다르게 자리 잡고 있는지 비교한다. 그리고 역대기 내에서 본문의 문학적 특징들과 변형을 관찰한다. 마지막으로 역대기에서 홀다 예언의 기능을 살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홀다 예언의 역사적 진위의 문제를 논하기 보다는 역대기의 언어적인 표층에서 일

---

"Prophetesses in the Hebrew Bible", John Day(ed.), *Prophecy and Prophets in Ancient Israel: Proceedings of the Oxford Old Testament Seminar* (Library of Old Testament/Old Testament Studies 531; New York: T&T Clark, 2010), 65에서 재인용. 그러나 예언자라는 직접적인 명칭이 붙은 사람은 드보라와 홀다뿐이다.

- 7) 사무엘-열왕기에서 일정한 패턴('죄'-'죄의 심화'-'경고'-'반응'-'심판') 그리고 이들의 공통된 '심판설화' 속에서도 등장하는 인물들의 유사한 행동 그리고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들을 참고하라. Andrew Taehang Ohm, "Manasseh and the Punishment Narrative", *Tyndale Bulletin* 61.2 (2010), 237-254; 엠태항, 「역사와 파편: 히브리 고대사 독법 I」 (고양: 나이, 2015), 102-148.
- 8) 필자가 볼 때 열왕기의 제한된 홀다 본문(왕하 22:12-20)에서 여성성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역사서 전체의 맥락에서 어떤 패턴이나 주제가 반복되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니는 열왕기 본문에 관한 역대기의 문학적인 분석에 주안점을 둔다.<sup>9)</sup>

## 2. 홀다 예언의 거시구조

본 단락에서는 열왕기와 역대기가 요시아의 개혁이라는 중심 주제를 어떤 플롯으로 연결하는지 살펴본다. 설화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롯의 배열, 내러티브의 시간, 핵심인물들의 대화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들이 요시아 개혁본문을 관찰하기 위한 모든 요소는 아니지만 적어도 두 본문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율법책의 발견과 요시아의 죽음은 요시아 본문의 핵심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붙였다.

### 1) 플롯의 흐름

홀다의 예언을 이해하려면 예언의 성취가 요시아의 죽음과 인과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요시아 개혁 전체의 흐름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

9) 열왕기 본문과 역대기 본문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는 역대기 주석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그러나 역대기를 고대의 역사가로서 설정하고 역대기 사가를 문학적이고, 신학적이며, 교훈적인 역사를 재구성한 창의적인 역사 저작물로서 심도 있게 역대기의 문학성을 논한 연구로는 칼리미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열왕기 본문을 창의적으로 수용한 역사가로서 역대기 저자를 규정하는 칼리미와 의견을 같이 하지만 칼리미의 연구는 역대기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홀다 본문 같은 경우 극히 일부분만을 분석하고 있다(각주 45, 59). 필자는 홀다의 본문을 요시아 개혁의 넓은 틀 안에서 역대기에 의해서 어떻게 문학적, 신학적으로 재해석되는가에 집중한다. 칼리미의 시각은 역대기가 열왕기의 본문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역대기 당대의 문제 의식을 반영하여 문학적, 신학적,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칼리미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저서로는 다음과 같다. Isaac Kalimi, *An Ancient Israelite Historian: Studies in the Chronicler, His Time, Place, and Writing* (Studia Semitica Neerlandica 46; Assen: Royal Van Gorcum [now under: E.J. Brill, Leiden], 2005); *The Reshaping of Ancient Israelite History in Chronicle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5); *Das Chronikbuch und seine Chronik: Zur Entstehung und Rezeption eines biblischen Buches* (Fuldaer Studien 17; Wien: Herder Verlag, 2013). 역사가로서 역대기를 보는 칼리미의 시각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논문으로는 "Placing the Chronicler in his own Historical Context: A Closer Examination,"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68 (2009), 179-192가 있다. 최근 우연한 기회의 만남에서 필자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의 논문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다고 소개해주신 칼리미 교수께 감사사를 표한다.

홀다의 본문은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공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기능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먼저 열왕기의 홀다의 본문은 다른 인접 본문들과 인과관계로 첨예하게 얽혀 있다. 요시야의 본문의 범위는 열왕기하 22-23장 전후 문맥에서 열왕기는 므낫세와는 정반대의 인물로 대조되는 동시에(왕하 23:25, 왕하 21:9-12)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므낫세에게 전가함에 따라(왕하 23:26) 요시야의 운명은 므낫세의 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인물화 된다. 홀다의 예언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요시야의 개혁은 므낫세 시대의 우상숭배와 배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왕하 21:2-7), 그의 죽음도 개인의 문제보다는 므낫세의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

반면 역대기의 문맥에서 나타난 므낫세라는 인물은 열왕기와는 정반대로 회개한 인물의 전형으로 사용된다(대하 33:10-17). 따라서 역대기에서 요시야의 개혁은 므낫세의 회개와 재건 사업을 단기간에 무효화 한 아몬 시대의 배교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된다. 역대기는 므낫세와는 별개로 요시야라는 개인의 결단과 행동의 결과에 집중한다.

요시야 내러티브의 플롯의 흐름을 보면 율법책의 발견과 홀다의 예언을 중심으로 두고 개혁의 흐름에 차이를 보인다. 열왕기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하지만 역대기에서 율법책은 이미 성전과 땅이 정화된 후에 발견된다. 다음은 요시야 개혁의 순서를 비교한 것이다.

열왕기: 요시야의 등극(왕하 22:1-2), 성전 수리(22:3-7), 율법책 발견(22:8-13), 홀다의 예언(22:14-20), 율법책 낭독과 언약갱신(23:1-3), 성전 정화(23:4-7), 땅의 정화(23:8-20), 유월절 준수(23:21-23), 개혁에 대한 열왕기의 평가(23:24-27), 요시야의 죽음(23:28-30).

역대기: 요시야의 등극(대하34:1-2), 성전과 땅의 정화(34:3-7), 율법책 발견(34:8-21), 홀다의 예언(34:22-28), 율법책 낭독과 언약갱신(34:29-32), 개혁에 대한 역대기적 평가(34:33), 유월절 준수(35:1-

19), 요시야의 죽음(35:20-27).

## 2) 내러티브의 시간

요시야 개혁이 진행되는 시간의 흐름에서도 두 역사가의 성향은 큰 차이를 보인다. 열왕기는 요시야의 즉위 18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국한되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 요시야의 개혁은 시간을 보다 넓게 확장된다. 역대기에서 요시야는 재위 8년의 이른 시기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한 경건한 군주였다. 본격적인 성전의 회복은 요시야의 18년의 개혁 후반기에 등장한다.<sup>10)</sup>

## 3) 대화체의 삽입

내러티브에서 대화체는 담화적 시간을 늦춰서 독자로 하여금 사건 속에 들어가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빚어낸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해 보면 역대기는 요시야 개혁에서 진행되는 중요 사건의 순서를 바꿈과 동시에 그 강조점에 따라 등장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담화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확장하기 때문에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정화 작업의 순서도 뒤바뀐다.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정화가 유월절 축제를 지키기 전에 등장하지만(왕하 22:15-20), 역대기에서는 율법책의 발견 이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의 정화가 이루어진다(대하 34:6-7).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열왕기의 대화체(왕하 22:17-18)는 역대기에서 생략된다(대

---

10) 루이스 존커는 이러한 시간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네 가지의 시간적 표지가 내러티브의 진행과 초점을 결정한다. 요시야는 재위 8년에 주님을 찾기 시작한 후 (대하 34:a),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후상들을 제하면서(34:3b), 18년이 되는 어느 때에 끝나게 되는데 성전이 회복되고, 율법책이 발견된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된다(34:8, 19). 여기에서는 이 모든 사건을 18년에 한정시키는 신명기 역사서의 왕하 22-23장의 시간적인 편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Louis C. Jonker, *1 & 2 Chronicles* (Understanding the Bible Commentary Series; Grand Rapids: Baker Books, 2013), 286.

하 34:6-7). 그럼에도 홀다 본문에 나오는 대화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점이 특이하다(대하 34:15-28). 역대기는 대신 유월절 축제의 본문을 확장시키면서 요시야의 긴 연설문을 직접화법으로 변형시킨다(대하 35:3-6). 주목할 것은 요시야가 죽는 장면에서 바로 느고의 말이 그가 보낸 사절의 입을 빌어 직접화법으로 서술되는 점이다(대하 35:21). 화살을 맞고 죽어가는 요시야의 말 또한 직접화법으로 나타난다(대하 35:23).

반면 열왕기에서는 요시야 등극 초반에서부터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하는 요시야(왕하 22:4-7, 13)와 힐기야(22:8), 사반(22:9-10) 그리고 홀다(22:15-20)에 이르기까지 직접화법을 통해 생동감 있게 서술된다. 역설적이게도 홀다가 전한 말에서 정작 홀다의 개인적인 언설은 들을 수 없다. 홀다의 입술을 빌어 선포된 야웨의 신탁은 이야기의 전후를 전망하는 일종의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유다의 과거와 미래의 운명은 홀다가 내다본 창을 통해 투영된다.

계속해서 열왕기에서 직접화법은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언약서를 봉독하고 계약을 맺는 사건(왕하 23:1-3)을 중심으로 성전의 정화와 유다의 정화 그리고 범위가 북이스라엘에까지 이르렀을 때에도 등장한다. 즉, 요시야가 기념기둥을 발견하고 그것이 유다에서 온 예언자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대화체로 기술하면서 재등장 한다(왕하 23:17-18). 또한 유월절 축제에 관해서 열왕기는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요시야의 짧은 명령은 북이스라엘의 정화와 연속되면서 요시야의 직접화법은 여기에서 끝난다(왕하 23:21). 열왕기에서 대화체는 요시야 개혁의 서두와 결론부에 중요한 사건에 등장하여 균형을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짧게 인용되는 직접화법은 이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하는 야웨의 말로 요시야의



모든 개혁을 매듭짓는다(왕하 23:27).<sup>11)</sup>

#### 4) 율법책의 발견

홀다의 본문은 열왕기와 역대기 모두 요시야가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왕하 22:14-20; 대하 34:22-28). 하지만 이 사건은 열왕기와 역대기 사이에서 다르게 설명된다. 열왕기에서 율법책의 발견은 요시야가 개혁을 하는 결정적인 동기로 작동되지만 역대기에서는 이미 진행된 개혁에 대한 일종의 반응/보상의 성격을 갖는다.<sup>12)</sup>

율법책을 발견하는 계기에 대해서도 두 본문의 설명은 다르다. 열왕기에서는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왕하 22:8)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율법책이 어떤 경위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와 달리 역대기는 아웨의 집을 보수하기 위해 궤에서 은을 꺼내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대하 34:14)라고 구체화한다. 율법책이 발견된 곳이 연보궤였다는 역대기의 설명은 그동안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성전에 제대로 연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율법책을 성전수리를 위해 궤짝을 비우는 과정에서 발견된다는 점은 요시야 시대에 비로소 성전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났다는 사실을 말하려 하는 듯하다. 역대기에서 아웨 성전의 수리는 땅의 정화 뒤에 잇따른 일련의 계획적 사업이었다.<sup>13)</sup> 다시 말해 “그 땅과 전을

- 
- 11)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아웨의 선언이 직접화법으로 서술된 것은 요시야의 개혁을 요약하는 한편 요시야의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연결 고리 역할로 보인다.
  - 12) 율리암슨은 폰 라트를 인용하면서 요시야의 개혁에서 율법책의 발견은 열왕기에서는 개혁의 기초가 되지만 역대기에서는 요시야 개혁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지며 이어지는 개혁을 추진하는 토대로 사용된다고 본다. 덧붙여서 율리암슨은 토라와 모세의와 관련해 주목해서 경건한 왕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진 율법의 발견과 모세의 책의 발견이 일종의 보상으로 주어졌다는 점을 설명한다. G. von Rad, *Das Geschichtsbild des chronistischen Werkes* (Stuttgart, 1930), 14. H. G. M. Williamson, *1 and 2 Chronicle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London: Eerdmans; Marshall, Morgan & Scott Pub., 1982), 401에서 재인용.
  - 13) 이에 대해 벤 프비는 역대기가 성전의 회복과 율법의 발견과의 관계를 강조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당시의



정화하기를 마치고”(대하 34:8) 성전을 회복사업이 시작된다. 아울러 성전 수리를 위해 거둬들인 연보는 온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었다.

저희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대하 34:9, 개역개정)

드 베테 이후 많은 학자들은 열왕기에서 요시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신명기의 일부였다고 주장하곤 한다.<sup>14)</sup> 브루그만은 율법책에서 언급되는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 27-28장의 내용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한다.<sup>15)</sup> 배희숙은 대하 34:18에서 왕하 22:10의 대명사 접미어가 ‘후(חַי)’가 ‘보(בּוֹ)’로 대체된 것을 볼 때, “율법책의 일부를 읽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sup>16)</sup> 사실 열왕기에서도 요시야 개혁의 결론 부에서 비로소 “모세의 모든 율법”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점을 유의할

---

독자들에게 율법책의 발견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적으로 의도된 징후”로 읽히게 된다는 것이다. Ehud Ben Zvi, “Observations on Josiah’s Account in Chronicles and Implications for Reconstructing the Worldview of the Chronicler”, Yairah Amitin(ed.), *Essays on Ancient Israel in Its Near Eastern Context: A Tribute to Nadav Na’aman*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6), 94. 같은 맥락에서 신명기 역사의 서술을 덧붙이거나 구체화함으로 제2성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역대기 사가의 시도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는 장면에서도 발견된다. 이 기록은 열왕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대하 7:1-3 vs. 왕상 9:54-61).

- 14) Wilhelm Martin Leberecht De Wette, *Dissertatio Critico-Exegetica qua Deuteronomium a Prioribus Pentateuchi Libris Diversum, Alius Cujusdam Recentioris Auctoris Opus Esse Monstratur* (Jena, 1805) = *Beiträge zu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2 Volumes; Halle: Schmmelpfenning, 1806, 1807) = *A Critical and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Canonical Scriptures of the Old Testament* (2 Volumes; Boston: Charles C. Little and James Brown, 1850).
- 15) W. Brueggemann, *1 & 2 Kings* (Macon, Ga.: Smith and Helwys, 2000), 546-547. 그중에서 어떤 재앙이나 저주의 내용을 말하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 16) 배희숙, 「역대하」,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428.

필요가 있다(왕하 23:25). 어쨌든 열왕기의 본문에서 율법책의 성격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율법책”(חֻמְרֵי הַתּוֹרָה)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모세가 전한 율법책”(חֻמְרֵי תּוֹרַת מֹשֶׁה)이라는 구절을 첨가해서(대하 34:14) ‘모세의 율법책’으로 구체화 한다.<sup>17)</sup>

### 5) 요시야의 죽음

홀다의 예언은 요시야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취의 문제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된다.<sup>18)</sup> 존커가 상기하는 바와 같이 역대기가 선호하는 주요단어들과 함께 왕들에 대한 역대기의 장례기록은 역대기의 역사기록 방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sup>19)</sup> 따라서 역대기에서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더불어 요시야의 죽음과 특히 장례 장면이 성대하게 그려지는 모습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큰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요시야의 죽음을 설명하는 장면에서다. 열왕기는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은 위대한 개혁군주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간략하게 서술할 뿐

17) S. L. McKenzie, *1-2 Chronicl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4), 362.

18) 홀다의 예언의 성취문제에 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홀다의 예언은 요시야가 평화롭게 죽는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입장과 “평화롭게 죽는다”는 홀다의 예언은 요시야의 장례에만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다. 전자는 F.M. Cross, R.D. Nelson, M. Rose, S.L. McKenzie를 들 수 있고 후자로는 W. Dietrich, H.-D. Hoffmann, A.D.H. Mayes, P.S.F. van Keulen을 들 수 있다. 위의 입장에 대한 자세한 서지사항은 다음을 참조하라. P.S.F. van Keulen, “The Meaning of the Phrase WN’ SPT ‘L-QBRTYK BŠLWM in 2 Kings XXII 20,” *VT* 46 no. 2(1996), 256. 한편 최근에 피취(Michael Pietsch)는 후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홀다의 예언은 요시야 왕의 개혁보다는 “이상적인 개혁군주가 처했던 역사적-신학적 아포리아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Prophets of Doom: Hermeneutical Reflections on the Huldah Oracle (2 Kings 22)”, Mark Leuchter/Klaus-Peter Adam(eds.), *Soundings in Kings: Perspectives and Methods in Contemporary Scholarship*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0), 79.

19) 장례에 대한 긍정적인 기록은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에서 발견된다. Louis. C. Jonker, “Huldah’s Oracle: the Origin of the Chronicler’s typical style?”, *Verum et Ecclesia* 33(1), Art. #714, 7 pages. <http://dx.doi.org/10.4102/ve.v33i1.714>.(2017년 4월21일 접속). 느고의 침입을 서술하는 열왕기의 기사는 이전 이야기와는 별도의 에피소드로 구성된다.

만 아니라 그의 이해되지 않는 돌연한 죽음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대기는 열왕기의 부족을 보충하려는 듯이 느고가 마치 예언자처럼 등장해서 경건한 왕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고를 전하면서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장면을 삽입한다. 요시야의 전쟁 모습은 열왕기에게는 그다지 중요하게 주목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역대기는 요시야의 전사 장면을 패러디 기법을 사용해 아합의 전쟁 장면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최후가 보란 듯이 대조된다. 역대기에 의해 해석된 요시야는 같은 인물이면서도 열왕기와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요시야의 개혁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이전의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려는 역대기 기자의 의도는 벤 쓰비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 후에(אחרי כל זאת)”(대하35:20)라는 부사구를 통해 요시야의 개혁과 바로의 침입을 시간적 연결(temporal relation)을 시도하는 것을 통해 분명해진다(왕상 23:29).<sup>20)</sup>

요시야의 최후 장면(왕하 23:30)에서 열왕기는 므깃도에서의 전사, 예루살렘으로 이동과 장례식이라는 공간이동으로 간략하게 끝난다. 하지만 역대기는 이 사이에 다른 설명을 덧붙인다. 역대기에서 요시야는 야웨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의 말을 끝이듣지 않고 어떻게 하든 불길함을 피해 보려는 인간적인 노력이 삽입된다. 아합과 요시야의 죽음 장면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야벳이 지적하는 것처럼 단순히 유사성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어떤 신학적인 동기에서 이러한 대비를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sup>21)</sup> 야벳은 아합은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들은 반면 요시야는 느고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 둘은 모두 그 예언을 전달하는 사람의 겉모습 때문에 속임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요

20) Ehud Ben Zvi, *윳글*, 92.

21) S. Japhet, *I and II Chronicles: A Commentary* (OTL; London: SCM, 1993), 1043.

시아를 아합과 비슷하게 묘사한 중요 동기라고 설명한다.<sup>22)</sup> 그러나 야벳은 아합에게 미가야리는 예언자가 올바른 예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사실 변장을 한 것은 거짓 예언자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참 예언자의 말을 꺼림칙하게나마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야벳의 의견처럼 이것이 이 둘을 함께 대칭 시켜서 해석하도록 하는 결정적 이유인 것 같지 않다. 결국 야벳은 요시아의 죽음의 장면에서 이 둘의 차이점에는 주목하지 않은 듯하다. 이 두 사건에서 뚜렷한 차이는 오히려 이들이 죽은 후의 장면에 있다. 요시아가 전사한 후에 버금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은 아합의 죽음과는 분명 구별된다. 요시아는 느고가 보낸 사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우를 범했지만(대하 35:21), 그의 죽음에서 만큼은 영웅으로서 충분한 대접을 받는다. 이것은 어떻게 홀다의 예언이 성취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열왕기에 의하면 요시아는 므깃도에서 숨을 거두지만 역대기에서는 요시아가 정결한 병거에 옮겨 태워져 예루살렘에서 숨을 거둔다(대하 35:24).<sup>23)</sup> 그는 단순히 그의 묘실이 아니라 열조의 묘실에 묻히게 된다(대하 35:24).<sup>24)</sup> 열왕기에서는 예레미야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역대기에서는 애가를 지어 요시아의 죽음을 애도한다(대하 35:25).<sup>25)</sup> 따라서 역대기는 장엄한 요시아의

22) S. Japhet, *룻길*, 1043.

23) 아합이 죽은 때는 해가 질 즈음이지만 요시아가 죽은 때는 아웨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할 즈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평화롭게 무덤에 묻혔다. 역대기의 시각대로라면 만약 그가 순종했다더라면 전쟁에서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웨의 뜻은 느고를 막지 않는 것이었다. 요세프스는 이를 의역하여 “요시아가 장엄하게 (μεγαλοπρεπῶς) 장사되었다”라고 설명한다. *Antiquities of the Jews* 10:5 (H. St. J. Thackeray and Ralph Marcus) = *Antiquities of the Jews*, 10:77 (William Whiston).

24) 열왕기의 본문에 요시아는 그의 묘실에 장사되었으나 역대기는 그가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다는 내용으로 바꾸어 홀다의 예언의 성취를 요시아의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한다. 역대기에서 요시아의 죽음은 더 이상 이해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홀다의 예언과 요시아의 행동에 대한 책임 그리고 예언의 성취라는 플랫폼의 흐름을 충실히 이행한다. 상대적으로 열왕기에서 보이는 홀다의 예언은 모호성을 남기면서 그대로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남긴다.

25) 요시아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며, 홀다로 인해 조명 받지 못했던 예레미야는 내려티브의 절정에서 존 재감을 드러낸다. 예레미야에 의해서 기록된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와는 상관없다. S. McKenzie, *룻길*.

죽음에서 홀다의 예언이 충실하게 성취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sup>26)</sup> 야벳이 지적하는 것처럼 홀다의 예언에는 신명기 역사서의 문맥에서 볼 때도 요시아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관한 명령은 들어 있지 않다.<sup>27)</sup>

요세프스도 비슷한 관점을 시사한다. 왕이 죽은 후에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정했다는 야웨의 뜻을 홀다가 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요시아의 죽음이 이들에게는 재난을 당하는 신호가 된다(『유대 고대사』, 10권, 4장/*Antiquities of the Jews*, 10:61). 요세프스의 해석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불행은 어떤 기도로도 무효화시킬 수 없도록 이미 운명이 정해진 것이었다(『유대 고대사』, 10권, 2장/*Antiquities of the Jews*, 10:60). 필자가 볼 때 요세프스의 이러한 시각은 열왕기를 반영한 관점으로 보인다.

유대 백성들이 회개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운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열왕기와는 달리 역대기는 ‘검비함’이라는 주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백성들이 요시아처럼 ‘낮추기만’하면 얼마든지 야웨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대하 7:14; 30:11; 32:25; 33:12; 35:12-16). 역대기 시각에서 보면 백성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었다. 배희숙도 히스기야의 예를 들면서 (대하 29:6-9, 19; 30:6b-9) “오로지 검비함을 통해서 임박한 진노를 늦출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왕국의 운명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언급한다.<sup>28)</sup>

---

365.

26) 사실 야벳은 홀다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일부는 성취되었다고 본다. “비록 이 예언은 결국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곳에 가져올 재앙을 네가 목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적인 성취는 이루어졌다.” S. Japhet, *윳글*, 1033.

27) 윳글, 1033.

28) 배희숙, 윳글, 431-432.

### 3. 역대기에서 홀다 예언의 문학적 특징

본 단락에서는 홀다에 관한 전승과 예언자로서의 홀다의 여성성이 역대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열왕기의 본문에 역대기에서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살핀다.

#### 1) 홀다는 누구인가?

홀다라는 이름의 뜻이 חֲזַי(홀레드/족제비(weasel)/남성단수)에서 파생이 되었다면 ‘암족제비’라는 뜻이다(BDB). 서명수는 홀다라는 특이한 이름에서 “사회에 대한 거부감”,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심판의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찾는다.<sup>29)</sup> 홀다는 열왕기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예언자다. 그녀는 살롬의 아내로 남편은 “예복담당관”<sup>30)</sup>으로 성전 예식에서 사용하는 예복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었다. 여기에 비길만한 존재는 사울의 미래를 점치는 엔들의 무당인데 이들의 신분 이 서로 대조 된다.<sup>31)</sup>

홀다에 대한 정보는 성경 본문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성경 외의 자료들은 어떻게 성경 본문에 상상력을 불어넣어 후대 전승을 발전시켰

29) 서명수는 족제비는 인간과 인근에 거하면서 인간생활 영역을 맴도는 주변자의 존재로 설명한다. 홀다와 카프카를 비교하면서 카프카(kafka/체코어로 까마귀라는 뜻)라는 특이한 동물 이름과 홀라의 공통점을 지적한다. 서명수, *윗글*, 123. 필자가 보기에 ‘족제비’의 습성은 인간과 신의 경계에 서 있는 예언자의 고뇌를 가장 잘 표현하는 상징어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더불어 ‘드보라’도 벌(bee)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흥미롭게도 서기관 이름 ‘사반’(rock badger 바위 오소리, BDB)도 일종의 부정된 동물의 이름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든다(레 11:4-6; 신 14:7). 아울러, 서명수는 사회비판적 기능을 담당한 예언자 ‘나비’의 원형을 홀다에서 찾는다. *윗글*, 122. 동물의 이름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하모리는 여기에 ‘악불’의 이름도 ‘생쥐’를 뜻하기 때문에 홀다의 이름을 ‘쥐’로 해석하면 서 열왕기에 나오는 ‘쥐(홀다), ‘생쥐(악불), ‘너구리(사반) 가운데서 ‘악불’이 빠진 것을 지적한다(왕하 22:14 = 대하 34:20). Esther J. Hamori, “The Prophet and the Necromancer: Women’s Divination for Kings”, *JBL* 132, no. 4 (2013), 841.

30)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성서위원회(편), 『주석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940.

31) Susan Ackerman, “Why is Miriam also the Prophets? (And Is Zipporah among the Priests?)”, *JBL* 121(2002): 47-80.

는지를 추적해 볼 수는 있지만,<sup>32)</sup>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있어 결정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홀다라는 인물연구를 위해서는 신명기 역사서 전체의 배경 아래 홀다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하는 동시에 최초의 독자였던 역대기가 어떻게 홀다를 이해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

## 2) 역대기에서 홀다의 등장과 여성성

요시야가 보다 영향력 있는 예레미야나 스바냐에게 요시야가 야웨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필 홀다에게 물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여러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sup>33)</sup> 한디(Lowell K. Handy)는 여자 예언자로서의 홀다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옛살하돈과 나보니두스의 통치시대에 마르둑과 난날(Nannar)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신탁을 행했던 것과 같은 고대근동의 종교적 배경 아래서 홀다를 이해한다.<sup>34)</sup> 라쉬(Rashi)에 의하면 요시야가 홀다에게 자문을 구한 이유는 홀다가 여성이므로 예레미야와 같은 다른 예언자들보다는 부드러운 예언을 할 것으로 기대

32) 홀다는 예레미야의 친척관계로 보기도 한다. Robert R. Wilson, *Prophecy and Society in Ancient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1980), 223. 홀다의 무덤이 올리브산(감람산)에 있다는 전승은 중세시대부터 전해진다. 한편 토세프타(Tosefta)에서는 홀다의 무덤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존재했지만 정확한 장소는 성전의 파괴와 함께 알 수 없다고 설명한다(BB 6, 2; Neg. 62: 1, 11; Sem. 14). Jon Seligman/Rafa Abu Raya, "A Shrine of Three Religions on the Mount of Olives: Tomb of Huldah the Prophetess; Grotto of Saint Pelagia; Tomb of Rabi 'A Al-'ADAWIYYA", *Atiqot* 42 (2001), 222에서 재인용.

33) 이에 대한 연구들의 소개는 한디의 연구를 보라. Lowell K. Handy, "The Role of Huldah in Josiah's Cultic Reform", *ZAW* 106 (1994), 40. 특히 각주 1. 이외에도 피프스(William E. Phipps)는 홀다는 글을 읽을 수 있었던 반면 예레미야는 바룩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A Woman was the First to Declare Scripture Holy," *Bible Review* 6:2 (April 1990), 15. 하모리는 홀다의 예언을 고대근동에서 행해진 여자 점술가들의 행동과 동일시한다. Esther J. Hamori, *웃글*, 843. 여성성에 주목하는 위의 의견과는 달리 예레미야와 홀다를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 처해있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반 델 트루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거짓된 서기관의 펜"에 의해서 조작된 것으로 비판했다(렘 8:8-9), 그 결과 관리들이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홀다에게 의뢰했다(왕하 22:11-20)고 설명한다. Karel Van Der Toorn, *Scribal Culture and the Making of the Hebrew Bible*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35.

34) 이와 달리 벤 쓰비는 렘 21:2에도 언급되는 **גבב שגרה**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볼 때(대하 34:21) 홀다에게 관리들을 보낸 목적이 자신과 백성들을 중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 Ehud Ben Zvi, *웃글*, 97.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up>35)</sup> 존 그레이는 홀다가 예레미야나 스바나보다는 같은 종교권력 안에 속해 있는 성전관리의 아내이기 때문에 덜 당혹스러운 예언을 내리리라 기대했을 것이라 추측한다.<sup>36)</sup> 적어도 이러한 주장들은 홀다의 본문에서 여성성이 어느 정도 기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웨임스(Renita J. Weems)는 이에 대하여 신명기 역사가가 홀다의 여성성을 통해 시대의 심각성을 반영한다고 본다. 홀다는 엔들의 무당(삼상 28:8-14)과 드보라의 경우(삿 4:17-22)에서처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등장하는 여성의 예를 들고 있다.<sup>37)</sup> 덧붙여 웨임스는 유대전승 자료로는 홀다 게이트의 이름과 관련하여 홀다의 학교가 그 근처에 있었다는 것과 홀다의 거주지역의 이름 “미쉬네”를 두 번째 지역이 아니라 “공부하다”와 연관시킨다(b. Meg. 14b).<sup>38)</sup> 보다 상상을 더한 의견에는 홀다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반면 바룩에 의지했던 예레미야는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홀다에게 자문했다는 의견도 있다.<sup>39)</sup> 요약하면 웨임스는 사회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이자 북이스라엘의 유민이었던 홀다의 눈에도 유다의 멸망이 훤히 보였다는 점을 들어 강조한다.<sup>40)</sup> 웨임스가 말하는 것처럼 홀다가 북 왕국 유민이라면 그녀의 남편이 왕궁의 일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왕의 옷을 관리

- 
- 35) Morris Rosenbaum and Abraham M. Silbermann, *Pentateuch with Targum Onkelos, Haphtaroth and Prayers for Sabbath and Rashi's Commentary* (London: Shapiro, Vallentine & Co., 1946). Renita J. Weems, "Huldah, the Prophet: Reading a (Deuteronomistic) Woman's Identity", Brent A. Strawn/Nancy R. Brown(eds.), *A God So Near: Essays on Old Testament Theology in Honor of Patrick D. Miller*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3), 329에서 재인용.
- 36) John Gray, *I & II Kings*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1), 726.
- 37) Renita J. Weems, *읽글*, 323. 에커만 역시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는 드보라와 엔들 무당처럼 여성에 주목한다. Susan Ackerman, *읽글*, 47-80. 하모리는 엔들의 무당과 홀다의 유사성을 고대의 점술활동의 맥락에서 이해한다. Hamori, *읽글*, 843.
- 38) *읽글*, 330.
- 39) William E. Phipps, "A Woman Was the First to Declare Scripture Holy", *BRev* 6/9(April 1990), 15. *읽글*, 330에서 재인용.
- 40) Renita J. Weems, *읽글*, the Prophet", 335.

하는 일은<sup>41)</sup> 적어도 느헤미아가 술맡은 관원이었던 것처럼 왕의 측근으로서 엘리트임을 말해주는 증거로 보인다.

여성성에 대한 상상은 에텔만과 같이 홀다가 아세라 예언자였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sup>42)</sup> 그러나 필자는 워스가 지적한 것처럼 신명기 역사서에서 위기상황마다 여성들이 자주 등장하는 현상은 약한 여성을 사용해서 불가능한 구원을 이룸으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웨가 참된 왕이며 그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참된 통치를 받게 된다는 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상징적 도구로 본다.

신명기 역사에서의 여성들의 두드러진 역할과는 달리 역대기에서

- 
- 41) “예복담당관(keeper of the garments/wardrobe)”의 직책은 오직 이 본문에만 나타나는 타이틀이다. 여기에서 의복은 제사장이나 일반 제사장들이 제의를 위해 입었던 옷과 장신구들로(출 28:1-43; 레 8:7-9) 예식 때마다 바뀌어 할 필요가 있을 때(레 6:10, 11; 16:4, 23) 이를 관리하고 공급한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W. Johnstone, *1 and 2 Chronicles: 2 Chronicles 10-36 Guilt and Atonement*, Vol. 2 (JSOTS 25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241. 그렇다면 오염되거나 갈아입어야 하는 옷을 공급하는 그녀의 남편의 직업과 오염된 예루살렘의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관점은 상호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어쨌든, 그녀의 남편의 직업이 부득이 언급되는 것은 그녀의 인물화를 질적으로 규정해 주는 요소로 보인다. 존스톤은 그녀가 사는 제2구역이 분모과 스바냐 1장 10절에서 언급되는 곳으로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내려온 레위계를 포함한 유민들이 정착한 지역으로 북왕국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전승과 현대화 사이의 관련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W. Johnstone, 위글, 241. R. Dillard도 홀다의 남편의 직업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옷을 짓거나 관리하는 직업으로 본다. 딜라드는 ‘미쉬네’ 지역을 분모과 스바냐 1장 1절과 함께 느헤미아 11장 9절, 17절에서도 찾는다. R. Dillard, *2 Chronicles* WBC 15 (Waco, TX: Word Books, 1987), 281. 나이만에 의하면 제2구역은 주전 587/6에 파괴되어 주전 2세기에 와서야 재건되는데 그렇다면 이 설명을 빼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남겨두었다는 것은 본문이 역사적 사실이기보다는 전설에 기초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포로기나 포로후기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N. Na’aman, “The ‘Discovered Book’ and the Legitimation of Josiah’s Reform”, *JBL* 130, no. 1 (2011), 57. 그러나 필자가 볼 때 오히려 파괴된 지역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유다에게 탁월 운명을 암시하는 포로기의 저자의 의도를 더 확증해 준다고 생각한다. 반면 N. Lohfink는 N. Avigad와 E. Otto의 연구를 통해 볼 때 제2구역은 히스기야 초기나 적어도 요시아 초기부터 거주지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Recent Discussion on 2 Kings 22-23: The State of the Question”, *A Song of Power and the Power of Song: Essays on the Book of Deuteronomy* (1993), 41에서 재인용. 원자료는 N. Avigad, “Excavations in the Jewish Quarter of the Old City, 1969-1971”, Y. Yadin(ed.), *Jerusalem Revealed: Archaeology in the Holy City 1968-1974*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76), 44; E. Otto, *Jerusalem - die Geschichte der Heiligen Stadt: Von den Anfängen bis zur Kreuzfahrzeit* (Urban-Taschenbücher 308; Stuttgart: Kohlhammer, 1980), 68.
- 42) Diana Edelman, “Huldah the Prophet: of Yahweh or Asherah?”, Athalya Brenner(ed.), *A Feminist Companion to Samuel and King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239-242.

는 여성의 역할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역사의 전환점에 다다를 때마다 한나(삼상 2:1-2:10), 엘리(비느하스의 아내)가 발하는 한탄(삼상 4:19-22), 다윗을 구원한 미갈(삼상 19:8-17), 엔돌의 무당(삼상 28:3-25), 그리고 밧세바(왕상 1:11-31), 아비삭(왕상 1:1-4; 2:13-25), 여호세바(왕하 11:1-3)를 통한 구원행위나 심판의 선언, 혹은 왕권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부정적인 인물로 이세벨(왕상 16:31; 18:4, 13, 19; 19:1; 21:5-25)과 아탈랴(왕하 11:1-20), 북왕국 여로보암의 아내(왕상 14:1-18)<sup>43)</sup> 등의 여성 인물들도 다수 등장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이러한 인물들이 대거 생략되거나 역할이 축소되어서 전체 구도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밀접한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대신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행동을 자세히 부각시키고 유월절 준수와 같은 제의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열왕기서에서는 예상치 못한 율법책의 발견과 홀다라는 사전정보가 없는 인물의 등장을 통해 신명기 역사서 근거에 흐르고 있는 파토스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인간들의 예상을 뒤엎는 야웨의 다스림과 역사에 대한 간섭을 여성성을 빌어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신명기 역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예언자가 아니라 여성인 홀다를 사용한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독자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리고 요시야에 대한 해피엔딩을 기대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요시야를 비극 속에 던져 버림으로써 그보다 더 악한 유다의 백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이야기를 끌여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

43) 엔돌의 무당의 경우와 같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직접적으로 심판선언을 선포하지는 않지만 예언자 아히아의 입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선언하게 하는 중요한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왕상 14:1-16). 엔돌의 무당의 경우에 심판의 목소리는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선포된다.

### 3) 역대기에서 홀다에 본문의 취급

홀다의 예언본문은 언뜻 보기에는 큰 변화 없이 역대기에서 채택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려는 언어적 배치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역대기가 홀다의 신탁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중요한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요시아의 죽음에 대한 성취에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열왕기 홀다 예언의 후반부(왕하 22:18-19)는 베르겐의 분석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거민에 대한 저주를 중심축으로 해서 요시아와 아웨의 상호행동이 요시아의 반응을 그 안에서 감싸고 있다.<sup>44)</sup> 그런데 이 중심적인 주제 가운데 “황폐하고 저주가 되리라”는 구문이 역대기에서는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라고 대치해서 부정적인 중심축을 요시아가 겸손히 반응한 내용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간과 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본문의 수정으로는 역대하 34장 24절에서 “그가 왕 [앞에서] 읽은 책의 모든 말들대로” vs. “그들이 왕 앞에서 읽은 모든 기록된 저주들대로”라고 복수형으로 그리고 ‘왕 앞에서’라는 전치사를 삽입하여 분명하게 하는 부분이다. 구체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역대기

44) 베르겐이 제시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 A. 네가 들은 그 말씀들
- B. 네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었으므로
- X.                    네가 이곳과 이곳의 거민이 황폐하게 되고 저주가 되리라는 것을 듣고
- B'.            그리고 네가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 A'.    나 또한 너를 들었노라, 주님의 말씀이다.

David A. Bergen, *Dischronology and Dialogic in the Bible's Primary Narrative* (Piscataway, NJ: Gorgias Press, 2009), 180. 이와 함께 베르겐은 “이곳”이라는 여휘가 16절에서 두 번, 19, 20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통해 이 구절이 홀다 예언의 주제어라고 덧붙인다. 윗글, 181.

의 문학적인 기호대로 모호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라는 구절은 ‘모든 기록된 저주들’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칼리미는 역대기는 신명기 27장 15-26절; 29장 19-28절은 물론 신명기 28:15-68을 염두에 두고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라고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sup>45)</sup> 같은 문제에 대해 윌리엄슨도 역대기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레위기 26장; 신명기 27-29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sup>46)</sup>

율법책을 읽는 장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열왕기에서는 율법서를 발견했을 때 사반이 먼저 읽었지만 역대기에서는 사반은 먼저 읽지 않았고 요시아 앞에서 처음으로 그 내용의 실체가 밝혀진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볼 때 역대기는 율법책의 발견에서 낭독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점이 요시아에게 향하게 만든다. 왕과 대신들은 그 책이 사반에 의해서 읽혀졌을 때야 비로소 그 내용을 알게 된다(대하 34:14-18). 이와 달리 열왕기는 이미 제사장이나 사반 그리고 왕까지도 그 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왕하 22:8-10). 역대기에서는 요시아의 행동을 주목하면서 그의 행동 하나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해 간다. 예를 들어 요시아의 명령을 받고 율법 책의 내용에 대해 홀다에게 물으러 가는 사람들이 열왕기에서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반면(왕하 22:14) 역대기에서는 이들이 요약 처리됨으로(대하 34:22), 인물의 행동은 분산되지 않고 요시아의 개인적인 행동과 결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런 역대기 문학적인 대화와 변형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번역에서도 이러한 미묘함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역대하 34장 27절에서 “황폐와 저주가 되다” vs. “내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다”는 변형에서 부정적인 내용보다 긍

45) I. Kalimi, *The Reshaping of Ancient Israelite History in Chronicles* (Winona Lake, Ind. : Eisenbrauns, 2005), 58.

46) H. G. M. Williamson, *윌글*, 402.

정적인 내용이 두드러지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열왕기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운명보다는 요시야의 개인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변형시킨 것을 볼 수 있다. **נִיב**(카나/겸비하다, 낮추다)라는 단어는 이미 전반부에서 나왔지만, 역대기에서는 한 번 더 반복되어 그의 행동을 강조한다. 윌리엄슨은 이에 대해 “겸비하다”라는 단어가 역대기의 전형적인 단어임을 지적하면서(대하 7:14; 12:6-7, 12; 30:11; 32:26; 33:12, 19, 23; 34:7; 36:12), 아울러 요시야의 행동을 독자들에게 전형(典型)으로 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본다.<sup>47)</sup> 존커 또한 이 단어가 구약에서 모두 36회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5번이 사무엘-열왕기에 그리고 19번이 역대기에 나타나는데 17번이 역대기의 고유 자료(*Sondergut*)에 인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sup>48)</sup>

이외에도 역대기에서 보이는 본문의 문학적 특이 사항은 아래의 비교 본문과 각주를 통해 분석하였다.

왕하 22:14-20	대하 34:22-28
14 이에 제사장 힐기아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22 이에 힐기아와 왕의 보낸 사람들이 <sup>49)</sup>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독합의 <sup>50)</sup>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하매 <sup>51)</sup>
15 홀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23 홀다가 저희에게 <sup>52)</sup>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sup>53)</sup>

47) 윌클, 226, 402.

48) L. C. Jonker, 윌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개정에서는 두 번이나 강조해서 사용되는 단어를 “겸비하여”로 단 한 번만 번역한다. 반면 가톨릭 새번역은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현상을 독자가 쉽게 감지할 수 있게 한다. 표준새번역에서도 “겸손해져서”로 단 한 번 번역하여 반복을 피하고 있지만, 역대기 선포하는 반복효과를 번역자의 주관대로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번역상 문제점으로 보인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네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표준새번역). “이곳과 이곳 주민들을 두고 한 말을 듣고, 네가 마음이 유순해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곧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또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래서 나도 네 말을 잘 들어 주었다. 주님의 말이다”(가톨릭 새번역). 이처럼 번역의 측면에서 보면 물론 현대인이 읽기에 편하도록 번역이론을 감안하여 현대에 맞는 의역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열왕기와 역대기 본문과 같이 미묘한 구문의 차이를 내포한 본문에서는 원문의 의미를 살려 반복 효과를 노린 단어를 빼놓지 않고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적어도 본문에 따라 의도적으로 삽입되거나 반복 혹은 변형되는 부분을 번역에서 세심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6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24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sup>54)</sup>
17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25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 곳에 쏟으매 <sup>55)</sup>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18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26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19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말을	27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들 <sup>56)</sup>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sup>57)</sup>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0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리라.	28 [그러므로] <sup>58)</sup>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sup>59)</sup>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리라.

- 49) 열왕기에서는 다섯 명의 고관들이 출대를 찾아왔다. T. L. Constable은 이것은 “출대의 예언적인 은사가 높이 평가 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1 and 2 Kings”,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Old Testament*, John F. Walvoord and Roy B. Zuck(eds.) (Colorado Springs: Victor Books, 1983), 582. 베네마는 이렇게 고관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과 자세한 배경설명은 분명 의도적이라고 주장한다. G. J. Venema, *Reading Scripture in the Old Testament: Deuteronomy 9-10; 31-2 Kings 22-23-Jeremiah 36-Nehemiah 8* (Leiden; Boston: Brill, 2004), 80. 역대기에서 이런 명단들이 축약 됨으로 인해 출다보다는 이어지는 사건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 50) 살룸 족보의 이름들이 바뀐다: ‘티크바’(תִּיקְבָּא) vs. ‘토크하트’(תֹּחַתִּי); ‘하르하스’(חֲרָחַס) vs. ‘하스라’(חֲסָרָא).
- 51) 역대기는 “이와 같이”, “이것에 대해”(חֲרָחַס)라는 말을 삽입한다. 은 “이 뜻으로”라고 번역했다.
- 52) “그들에게”(חֲרָחַס)라는 표기가 축약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그 뜻에는 변화가 없다. 개역개정은 “저희에게”로 번역했다.
- 53) 전치사가 ‘엘’(לְ to) vs. ‘알’(עַל on/against)로 바뀌었다.
- 54) “그가 왕 [앞에서]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כְּכָל הַסֵּפֶר אֲשֶׁר קָרָא מֶלֶךְ יְהוּדָה בְּעֵינֵי הָעָם) vs. “그들이 왕 앞에서 읽은 모든 기록된 저주대로”(כְּכָל הַמִּצְוֹת הַכְּתוּבֹת עַל-הַסֵּפֶר אֲשֶׁר קָרָא מֶלֶךְ יְהוּדָה לְפָנֵי הָעָם)로 가장 눈에 띄는 수정부분이다. 역대기는 복수형을 사용하는 동시에 ‘왕 앞에서’라는 전치사를 삽입하여 뜻을 분명하게 한다.
- 55) “불뿔다”(חֲרָחַס) vs. “뿔다”/“쏟다”(חֲרָחַס) 전자는 불의 이미지에 가깝다. 후자는 분노나 물(비)을 쏟을 때 두루 사용된다. ‘나타흐’(חָרַח)는 열왕기에서 열왕기상 22장 9절(대하 34:17의 평행본문)에 단 한번 나타난다. 역대기에서는 이 단어가 요시아의 본문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대하 34:17, 21, 25). 반면 ‘불뿔다’라는 뜻의 ‘아차트’(חָרַח)는 (왕하 22:13=대하34:21, 왕하22:17=대하34:25) 평행본문에서 사용된다.



#### 4. 역대기 신학에서 홀다의 예언

신명기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은 홀다 예언자다. 다윗왕국의 왕위계승 문제 이후와 아탈라의 사건 이후에 눈에 띄게 보이는 여성에 대한 기록은 홀다가 유일하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여성이 등장한다는 점은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치던 여성들은 역대기에서 대부분 사라진다. 다윗의 계승본문에서 등장하던 밧세바와 아비삭은 사라지고 다윗은 마치 제사장처럼 솔로몬에게 권위 있게 왕위를 위임하면서 성전의 공사를 당부한다(대상 28-29).<sup>60)</sup>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하던 창녀들은 사라지고 다만 솔로몬의 전성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시바의 여왕이 다윗왕가를 축복한다(대하 9:8). 그녀는 솔로몬 왕국에 대한 축복 사절이 먼 타국에서 온 예배자로 성전 봉헌에 참가한다(대하

- 
- 56) "내가 말했던 것"(חָזַקְתִּי) vs. "그의 말씀들"(דְּבָרָיו)로 인칭이 바뀌면서 동사는 명사형으로 대체되었다. 역대기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구체화된 변형을 흔히 사용한다. 개역개정번역에서는 '그의'라는 소유 대명사를 생략하고 있다.
  - 57) 열왕기에서 "황폐와 저주가 되다"(חָרַבְתָּ וְנִשְׁבְּתָה)는 "내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다"(נִשְׁבַּחְתָּ)로 바뀌어서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다. 그러나 개역개정판의 경우 원문에 나오는 같은 단어 간의 중복을 피하려는 의도로 "겸비하여"라고 한 번만 번역 하고 있는데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는 역대기 신학을 잘 반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58) 역대기에서는 '그리므로'(כִּי) 접속사가 생략된다. 따라서 역대기의 문학적인 전락에서는 열왕기와는 달리 심판의 내용이 열왕기에 비해서 덜 강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한글의 본문은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59) "[예루살렘]의 거민"(גֵּרֵי יְרוּשָׁלַיִם)이라는 말이 첨가됨으로 다시 한 번 요시아와 예루살렘의 거민 사이의 운명에서 차별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그들의 죄와 요시아의 회개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구분 짓는 결과를 가져온다. 역대기가 지닌 개인에 초점을 맞춘 인과응보의 신학이 여기에도 드러난다. 이로써 역대기의 독서에서는 요시아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운명과 구분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앞으로 불순종했을 경우에도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런데 역대하 34장 28절의 첨가에 대해 칼리미는 역대하 34장 24, 27절에서 보이는 구절들과 조화시키려는 의도로 설명한다. Kalimi, 윗글, 132. 이 구절은 본문에서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 칼리미는 이러한 기술을 "본문의 일치화(textual harmonization)"로 분류한다. Kalimi, 윗글, 132.
  - 60) 역대기에서 다윗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판단력을 상실한 허수아비가 아니라(왕상 2장),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아웨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신명기적 언어(수 1:7)와 이사야 예언자의 말투를 빌어(사 41:10)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 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대상 28:20).

9:9).

신명기 역사가의 시각에서 왕국의 시작과 멸망에는 한나의 노래가 홀다의 예언과 대칭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왕국사를 한 눈에 조망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삼상 2:1-10). 분명 한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적인 목소리로 왕국의 서막을 알린다. 따라서 신명기 역사에서 여성 예언자와 예언적인 목소리는 공통적으로 기능을 한다.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적인 목소리는 신명기 역사서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엘리야의 며느리 비스하스의 아내도 비록 예언자는 아니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대를 예언적인 목소리로 평가한다(삼상 4:21). 이점까지 고려하면 신명기 역사에서 여성들의 예언적 활동은 훨씬 폭넓게 확장된다. 한편 역대기에서는 신명기 역사서에서 일종의 패턴을 지니고 반복되는 예언적인 장면이나 선언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홀다의 경우에도 신명기 역사에서처럼 다른 여성들이나 예언적인 목소리와 화음을 이루기보다는 제한된 에피소드에서 기능하면서 특별히 요시야의 운명에 관한 인과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

홀다의 역할은 유다의 멸망과 요시야의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가 중대했기 때문에 유다를 향한 아웨의 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는 설명을 위해 이전의 통치자와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유다의 멸망은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역대기 기자는 아합에게서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원인에 대해 세밀히 탐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단적인 예로 아합의 심판에 대한 엘리야의 예언과 아합이 회개하여 아합 가문의 심판이 연기되는 부분은 생략되고 역대하 18장에서는 다만 미가야의 예언과 아합이 벌이는 전쟁과 그가 전사하는 장면만이 등장한다. 이것은 요시야의 평화로운 죽음에 대

한 예언적 성취를 설명하기 위해 신명기 역사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죽음의 장면을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역대기는 아합과 요시야의 죽음 장면에서 연관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요시야가 느고의 예언적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삽입함으로써 두 이야기 간의 긴밀성을 더욱 견고히 한다. 열왕기의 문맥에서 아합의 회개와 심판의 면제(왕상 22:20-29)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아합의 모습(왕상 22)은 다윗의 왕가에게 약속한 안전보장에 대한 예언의 미성취(삼하 7:15-16)와도 대칭을 이루는 신명기 역사가의 심판신학의 관점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다.<sup>61)</sup>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를 대본으로 삼으면서도 아합과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면에서 이끄러서는 이들의 차이점을 돋보이게 하는 아이러니를 동시에 사용한다.

아합과 요시야 모두 열왕기에서는 전쟁터에서 죽지만<sup>62)</sup> 역대기에 의하면 요시야는 부상을 입고 정결한 병거로 옮겨져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역대기 시각에서 보면 요시야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적어도 조상들과 함께 묻히게 되리라는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홀다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시야 개혁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아야 한다. 역대기의 초점은 홀다의 예언에서 요시야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보다 덧붙이는 동시에 그 이유를 요시야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취된 홀다 예언을 드러낸다. 요시야의 죽음에서 홀다 예언의 성취에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열왕기의 본

61) 치숨은 성경에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질문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의 문제로 “예언이 태생적으로 무조건조적이어서 모든 세부사항이 정확히 성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예언언어를 이해하는 특성으로 1) 예언 언어의 기능성; 2) 예언 언어의 불확정성; 3) 예언 언어의 상황적 성격을 든다. 따라서 홀다의 예언에서도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시야의 행동에 따라 그 성취 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Robert Chisholm, “When Prophecy Appears to Fail, Check Your Hermeneutic”, *JETS* 53/3 (September 2010), 561-577.

62) 역대기는 아합과 여호사밧과의 동맹과 그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아람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역대하 18장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서술한다(대하 18:1-34).

문과는 달리 선고되고 반응에 따라 개인의 운명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역대기의 입장은 히스기야가 죽을병이 들었을 때 기도도 기적을 경험하였으나 다시 교만해졌을 때 진노가 그와 유다에게 역대기는 그가 뉘우쳤을 때는 그의 생전에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을 볼 때(대하 32:24-26), 시드기야의 시대에도 백성들이 제대로 뉘우치기만 했다면 재앙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며, 요시아도 교만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홀다의 예언대로 평화로운 죽음을 맞을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 5. 나가는 말

시간은 현재를 과거로 밀어내기도 하지만 역사를 통해 지나간 기억에 새로운 숨을 불어 넣기도 한다. “성서는 독자와 함께 성장한다”<sup>63)</sup>는 그레고리(Gregorius the Great)의 말은 역대기에게 잘 어울리는 말이다. 지나간 사건을 더 넓은 시간의 안목을 통해 읽어내는 생동감 있는 통찰은 역대기의 역사 해석에서 발견된다. 라콕과 리콰르는 “텍스트의 전수는 단순한 읽기나 학문적인 검토가 아니라 그 텍스트에 관하여 설명되고 텍스트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언어가 된다”라고 이른 바 있다.<sup>64)</sup> 이처럼 역대기 사가는 확대경을 갖고 훑어 내듯 열왕기를 창조적인 어휘로 풀어내며 대담한 상상력을 불어넣는다. 역대기가 되새김질한 홀다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에서 열왕기의 본문과 겹치는 듯 보이지만 정밀한 언어로 조율된 역사의 언어들은 한때 유다에서 벌어진 요시아의 개혁이라는 사건을 괄목할만한 새로운 지평 위에 올려놓는다.

홀다의 예언은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공통본문으로 등장한다. 분량은

63) 앙드레 라콕/폴 리콰르, 「성서의 새로운 이해」(김창주 역), (따주: 살림, 2006), 12.

64) 앙드레 라콕/폴 리콰르, 윗글, 13.

많지 않지만 요시야 개혁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등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홀다의 예언은 후기 유대전승에서 다양하게 발전하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연구는 역대기가 어떻게 신명기 역사가와 대화하는가에 대한 면밀한 관찰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홀다의 예언이 열왕기와 역대기에서의 고유한 문학적 신학적 기능을 특정하기 위해 두 본문을 미시적, 거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홀다 본문이 역대기 내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홀다의 예언 본문의 문학적인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홀다의 예언에 대한 제한된 내용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요시야의 개혁이라는 전체 문맥을 이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홀다의 예언은 요시야 개혁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의문과 신앙적인 회의를 가져 올수 있는 애매한 열왕기의 설명부분에 대한 역대기의 재해석을 담고 있다. 역대기는 홀다의 예언과 요시야의 죽음 사이에서 그 성취를 변증하기 위해 요시야의 죽음 장면을 재구성 한다. 역대기는 요시야의 개혁의 순서와 서술 어휘를 달리함으로써 홀다 본문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요시야의 죽음에 관한 예언이 어떤 방식이로든 성취되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유다의 멸망을 조상들의 죄와 연관 시키는 열왕기의 관점과는 달리 역대기는 요시야라는 개인적인 경건한 왕의 신앙적인 행동에 주목한다. 신학적으로 볼 때 열왕기는 홀다의 예언을 피할 수 없는 유다의 멸망과 관련시키는 반면 역대기는 요시야의 개인적인 운명에 초점을 맞춘다. 여성의 역할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신명기 역사가와는 달리 역대기에서 홀다는 요시야 개혁을 긍정하고 율법서의 발견과 요시야의 죽음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돕는 역할을 한다.

## 6. 참고자료

- 앙드레 라콕/폴 리콤프, 「성서의 새로운 이해」(김창주 옮김), (파주: 살림, 2006).
- 배희숙, 「역대하」,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서명수, 「예언자 홀다(Huldah)와 카프카의 ‘회당의 동물’」, 「문학과 종교」, 제14권 1호 (2009), 117-136.
- 엄태항, 「역사와 파편: 히브리 고대사 독법 I」(고양: 나이, 2015).
- 이현숙, 「기독교의 여성 이해」, 「새가정」, (1982), 37-42.
- 이경숙, 「요시아 종교 개혁의 동반자」, 「기독교사상」, 37.11 (1993), 192-200.
- 하미자, 「구약에 나타난 여성 지도자 연구: 미리암 · 드보라 · 홀다에 관한 여성신학적 고찰」, 「한국여성신학」, 56 (2004년 3월), 60-68.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엮음, 「주석성경」(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10).
- Ackerman, Susan, “Why is Miriam also the Prophets? (And Is Zipporah among the Priests?)”, *JBL* 121(2002), 47-80.
- Avigad, N., “Excavations in the Jewish Quarter of the Old City, 1969-1971”, Y. Yadin(ed.), *Jerusalem Revealed: Archaeology in the Holy City 1968-1974*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76).
- Bergen, David A., *Dischronology and Dialogic in the Bible’s Primary Narrative* (Piscataway, NJ: Gorgias Press, 2009).
- Brueggemann, W., *1 & 2 Kings* (Macon, Ga.: Smith and Helwys, 2000).

- Chisholm, Robert, "When Prophecy Appears to Fail, Check Your Hermeneutic", *JETS* 53/3 (September 2010), 561-577.
- Constable, T. L., "1 and 2 Kings", John F. Walvoord and Roy B. Zuck(eds.)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Old Testament* (Colorado Springs: Victor Books, 1983).
- De Wette, Wilhelm Martin Leberecht, *Dissertatio Critico-Exegetica qua Deuteronomium a Prioribus Pentateuchi Libris Diversum, Alius Cujusdam Recentioris Auctoris Opus Esse Monstratur* (Jena, 1805) = *Beiträge zu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2 Volumes; Halle: Schmelpfenning, 1806, 1807) = *A Critical and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Canonical Scriptures of the Old Testament* (2 Volumes; Boston: Charles C. Little and James Brown, 1850).
- Dillard, R., *2 Chronicles* (WBC 15; Waco, TX: Word Books, 1987).
- Edelman, Diana, "Huldah the Prophet: of Yahweh or Asherah?", Athalya Brenner(ed.), *A Feminist Companion to Samuel and King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239-242.
- Gray, John, *I & II Kings*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1).
- Hamori, Esther J., "The Prophet and the Necromancer: Women's Divination for Kings", *JBL* 132, no. 4 (2013), 827-843.
- Handy, Lowell K., "The Role of Huldah in Josiah's Cultic Reform", *ZAW* 106 (1994), 40-53.
- Johnstone, W., *1 and 2 Chronicles: 2 Chronicles 10-36 Guilt and Atonement*, Vol. 2 (JSOTS 25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 Jonker, Louis C., *1 & 2 Chronicles* (Understanding the Bible Commentary Series; Grand Rapids: Baker Books, 2013).
- \_\_\_\_\_, “Huldah’s Oracle: the Origin of the Chronicler’s typical style?”, *Verum et Ecclesia* 33(1), Art. #714, 7 pages. <http://dx.doi.org/10.4102/ve.v33i1.714>.
- Kalimi, I., *The Reshaping of Ancient Israelite History in Chronicles*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5).
- \_\_\_\_\_, *An Ancient Israelite Historian: Studies in the Chronicler, His Time, Place, and Writing* (Studia Semitica Neerlandica 46; Assen: Royal Van Gorcum [now under: E.J. Brill, Leiden], 2005).
- \_\_\_\_\_, *Das Chronikbuch und seine Chronik: Zur Entstehung und Rezeption eines biblischen Buches* (Fuldaer Studien 17; Wien: Herder Verlag, 2013).
- \_\_\_\_\_, “Placing the Chronicler in his own Historical Context: A Closer Examination”,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68 (2009), 179-192.
- Lohfink, N., “Recent Discussion on 2 Kings 22-23: The State of the Question”, *A Song of Power and the Power of Song: Essays on the Book of Deuteronomy* (1993), 36-61.
- Na’aman, N., “The “Discovered Book” and Legitimation Josiah’s Reform”, *JBL* 130, no. 1 (2011), 47-62.
- McKenzie, S. L., *1-2 Chronicl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4).
- Rosenbaum, Morris/Abraham M. Silbermann, *Pentateuch with Targum Onkelos, Haphtaroth and Prayers for Sabbath and Rashi’s Commentary* (London: Shapiro, Vallentine &

- Co., 1946).
- Ohm, Andrew Taehang, "Manasseh and the Punishment Narrative", *Tyndale Bulletin* 61.2 (2010), 237-254.
- Otto, E., *Jerusalem – die Geschichte der Heiligen Stadt: Von den Anfängen bis zur Kreuzfahrzeit* (Urban-Taschenbücher 308; Stuttgart: Kohlhammer, 1980).
- Phipps, William E., "A Woman Was the First to Declare Scripture Holy", *Bible Review* 6:2 (April 1990), 14-16.
- Pietsch, Michael, "Prophetess of Doom: Hermeneutical Reflections on the Huldah Oracle (2 Kings 22)", Mark Leuchter/Klaus-Peter Adam(eds.), *Soundings in Kings: Perspectives and Methods in Contemporary Scholarship*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0), 71-80.
- Seligman, Jon/Rafa Abu Raya, "A Shrine of Three Religions on the Mount of Olives: Tomb of Huldah the Prophetess; Grotto of Saint Pelagia; Tomb of Rabi 'A Al-'ADAWIYYA", *Atiqot* 42 (2001), 221-236.
- van Der Toorn, Karel, *Scribal Culture and the Making of the Hebrew Bible*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van Keulen, P. S. F., "The Meaning of the Phrase WN'SPT 'L-QBRTYK BŠLWM in 2 Kings XXII 20", *VT* 46 no. 2 (1996), 256-260.
- Venema, G. J. *Reading Scripture in the Old Testament: Deuteronomy 9-10; 31-2 Kings 22-23-Jeremiah 36-Nehemiah 8* (Leiden; Boston: Brill, 2004).
- von. Rad, G., *Das Geschichtsbild des chronistischen Werkes*

(Stuttgart, 1930).

Weems, Renita J., “Huldah, the Prophet: Reading a (Deuteronomistic) Woman’s Identity”, Brent A. Strawn/Nancy R. Brown(eds.), *A God So Near: Essays on Old Testament Theology in Honor of Patrick D. Miller*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3), 321-339.

Wilson, Robert R., *Prophecy and Society in Ancient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1980).

Williamson, H. G. M., *1 and 2 Chronicle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London: Eerdmans; Marshall, Morgan & Scott Pub., 1982).

\_\_\_\_\_, “Prophetesses in the Hebrew Bible”, John Day(ed.), *Prophecy and Prophets in Ancient Israel: Proceedings of the Oxford Old Testament Seminar* (Library of Old Testament/Old Testament Studies 531; New York: T&T Clark, 2010), 65-80.

Zvi, Ehud Ben, “Observations on Josiah’s Account in Chronicles and Implications for Reconstructing the Worldview of the Chronicler”, Yairah Amit(ed.), *Essays on Ancient Israel in Its Near Eastern Context: A Tribute to Nadav Na’aman*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6).

검색어

홀다

요시야

율법서

신명기 역사

역대기

## Huldah's Prophecy in the Books of Chronicles(2Chronicles 34:22-28)

Andrew Taehang Ohm, Ph.D.

Assistant Professor, Old Testament Studies

Bibl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The prophecy of Huldah appears as a synoptic text in the Books of Kings and Chronicles. Huldah's discourse, though it is brief, is situated at the climax of Josiah's reform. However, especially in domestic research, the amount of research on the subject of Huldah is scarce, whereas studies on Josiah's reform is affluent.

The prophecy of Huldah is particularly significant, for it causes critical questions to arise. The questions, which cannot be overlooked, are diverse from basic questions like "Who is the prophetess Huldah?" or "Has Huldah's prophecy been fulfilled?" to the issue "What is the role of Huldah's prophecy in the reform of Josiah." In addition, the ambiguity of Huldah and her prophecy inspired later Jewish traditions.

www.kci.go.kr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not only to encourage others to do research concerning these questions but also to investigate the main issue of how the Chronicler reshaped the text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ian(s). This study proceeds as follows:

Firstly, we will observe how Huldah's prophecy functions in the broader context of Josiah's reform. Secondly, we will reveal how Huldah's text was literally transformed in the Book of Chronicles. Finally, through a comparison of the above investigations, we will observe the theological perspective of Huldah's text, which was interpreted by the Chronicler.

In summary, Huldah's prophecy needs to be understood in the broader context of Josiah's reform. Additionally, Huldah's prophecy operates differently in the Books of Kings and Chronicles. When it comes to the role of Huldah's prophecy, the Book of Kings is closely related to the subject of Judah's demise, whereas the Book of Chronicles focuses on explaining the cause of Josiah's death by reconstructing the scene of his death. The discourse of Huldah in a cursory reading seems to have nothing in particular in terms of length, however, an overall change can be discovered in the discourse order and the theological perspective as well as the literary strategy of the Chronicler.

## Keywords

Huldah

Josiah

the Book of Law

Deuteronomistic History

Chronicles

- 투고일: 2017년 7월 10일
- 심사일: 2017년 7월 11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8월 20일

[www.kci.go.kr](http://www.kci.go.kr)